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관중 30%

# 임성재 시즌 '첫 우승' 도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관중 규모 낮춰

배구 19일부터 30% 수용 다른 스포츠도 제한 입장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현장 관전 가능 인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인 5100명으로 줄어든다.

KBO 사무국은 이미 팔린 KS 3~7차전 표를 취소하고 17일 오후 3시부터 다시 판매한다.

17~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의 KS 1~2차전엔 수용 규모의 50%인 82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대비해 기존 3단계로 구분된 거리 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더한 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5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한다.

이 단계에서 스포츠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에 경기장이 집중된 프로배구도 19일부터 전 경기장에서 관중을 30%만 받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콜센터 집단 감염 여파로 총합 천안시가 5일부터 사회적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현대캐피탈 구단은 천안시 관중체육관에 들어오는 입장객 수를 30%로 제한했다"며 "19일 대전 충무

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화재-대한항공 경기부터 전 구장 관중을 30%만 입장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자프로농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KBL은 10월 9일 무관중으로 2020~2021시즌 개막했다가 10월 17일부터 경기장 수용 규모의 20% 중반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이달 7일부터는 50%로 확대했다.

남자농구는 19일 경기까지 치르고 난 뒤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에 따른 A매치 휴식기로 리그를 잠시 쉰다. 리그 재개 시점부터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자프로농구는 지난달 31일부터 휴식에 들어갔다.

22일 하나원큐-KB(부천체육관)의 대결로 리그를 재개하면서 유관중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미 입장 가능 인원을 안전을 위해 각 구단 홈

구장 전체 수용 인원의 3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로축구는 K리그1(1부리그) 일정이 모두 끝난 상황이다. 다만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K리그2 3경기와 준플레이오프(준PO) 1경기, 플레이오프(PO) 1경기 등 총 5경기만 남았다.

K리그2 잔여 정규리그 3경기 가운데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는 21일 치러지는 서울 이랜드-전남 드래곤즈전이다.

서울 이랜드 구단은 2만8058석의 좌석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3500석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PO를 홈팀인 수원FC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가용 좌석 6000석 가운데 1800석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준PO는 대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도권 팀이 홈팀이 되면 강화된 입장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연합뉴스

달라진 위상과 경기력으로 PGA투어·RSM 클래식 출전

골프 '명인열전'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해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임성재(22)가 내친김에 2020~2021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SM 클래식(총상금 660만 달러)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SM 클래식(총상금 660만 달러)에 출전한다.

1, 2라운드 시사이드 코스(파70)와 플랜테이션 코스(파72)에서 번갈아 치르고, 3라운드와 4라운드는 시사이드 코스에 열린다.

임성재는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남은 아쉬움과 벅찬 성취감을 안고 시아일랜드로 이동,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RSM 클래식을 건너뛰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출전이다. 이번엔 그때와 위상과 경기력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지금 세계랭킹 18위에 PGA투어 68경기를 출전했고, PGA투어 대



세컨 아이언샷 하는 임성재. 연합뉴스

회 챔피언(혼다클래식)과 투어챔피언십 '최후의 3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세계 정상급이다.

마스터스 직후에 열리는 대회라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가 딱 5명 출전한다. 이들 5명이 아무래도 우승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

2018년 3위, 작년엔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심프슨이 대회와 인연으로 보나 세계랭킹으로 보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연합뉴스

## 마스터스 총상금 1위 우즈... 105억원 넘어

올해 골프 '명인 열전' 마스터스에서 디펜딩 챔피언 타이거 우즈(미국)는 우승 경쟁에 합류하지 못한 채 공동 38위에 그쳤다.

우즈가 받은 상금 5만600달러(약 6194만원)는 우승자 더스틴 존슨(미국)이 손에 넣은 207만달러(약 22억 8983만원)에 비하면 아주 적다. 그러나 마스터스에서 벌어들인 총상금에서 존슨은 우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골프워크 집계를 보면 우즈는 마스터스만 955만6069달러(약 105억 6805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우즈는 마스터스에 23차례 출전해 5차례 우승을 거뒀다. 특히 그는 올해까지 21개 대회 연속 컷 통과라는 위업을 남겼다.

거리 플레이어(남아공)와 프레드 커플스(미국)의 대회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23회)에 불과 2회를 남겼다.

컷 통과는 곧 상금을 수령한다는 뜻이다.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쓸어 담은 비결이다.

이번에 우승한 존슨은 424만6475달러(약 46억9827달러)로 4위에 올랐다. 이번 우승 상금 207만 달러 덕에 순위가 경추 뛰었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1차전 앞둔 양팀 선수들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 앞서 양팀 선수들이 애국가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Utd 남기일·이창민·이동률 '수상 후보'

K리그2 대상 시상식 수상의 주인공은 누가

안병준(수원FC), 백성동(경남FC), 레안드로(서울 이랜드), 이창민(제주 유나이티드) 중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2 '최고의 선수' (MVP) 주인공은 누가 될까.

MVP 후보에는 안병준과 백성동, 레안드로, 이창민이 이름을 올렸다.

감독상 후보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격을 이끈 남기일 감독, 수원 FC 김도균 감독,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겨루는 전남 드래곤즈의 전경준 감독과 서울 이랜드의 정정용 감독이 포함됐다.

포지션상 격인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는 이동률(제주), 이상민(이랜드), 최건주(안산), 하승운(전남)이 올랐다.

K리그2 감독상 후보 전원이 신임

감독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적의 만 23세 이하인 선수 중 K리그 데뷔 경기를 치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은 그간 K리그1 선수에게만 주어졌으나 올해 K리그2에도 신설됐다.

K리그2 부분별 수상자는 23일까지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 고진영, 올해 첫 LPGA 투어 출전

김세영·박성현·이정은 등 세계 상위 랭커 총출동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고진영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6268야드)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LPGA 투어 상금과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다승 등 사실상 전관왕에 오른 고진영이지만 올해는 LPGA 투어 대회에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출국한 고진영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아메리카 불런티어스 클래식과 US여자오픈,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차례로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대회에 주력하던 이정은(24)은 2월 ISPS 한다호주여자오픈 이후 약 9개월 만에 LPGA 투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아이언 티샷 날리는 고진영. 연합뉴스

또 올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 김세영(27)과 9월부터 LPGA 투어 활동을 재개한 박성현(27)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한국 선수 5명 가운데 고진영(1위), 김세영(2위), 박성현(9위) 3명이 나오고 박인비(5위)와 김효주(10위)는 빠졌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돋움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슬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길에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 8: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도도솔솔라리솔(재) 11:00 도도솔솔라리솔(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이 맛에 산다(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종ын시 10:10 SBS 뉴스 10:30 설맛나는 오늘 11:00 예나그날리 11:30 에-메이선 런닝맨 스페셜 11:45 라바 아일랜드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뽀로로 8:45 워킹맘 리턴즈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 16:15 로빈 후드 16:30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비너 하나 19:30 자이언트 펭TV 22:45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이슈 픽업 함께 스페셜 15:00 시아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간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20 영상의 발견 신(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지동공부방 신 퀴즈2 15:30 TV 유치원 16:00 유지는 사랑을 살고(재) 17:00 신비이파트 17:30 골똘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처치평평 시즌2 12: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테마기획 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KINX 뉴스에다 2 리스트 천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JIBS 토크콘서트 뉴스타임, 제주와 첨단산업(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백중원의 골목시당(재)	<b>제주 CBS FM 93.3MHz</b> 7:00 길거리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랑이 김세영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전야제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쇼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중원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TV는 사랑을 싣고 21:30 도도솔솔라리솔 22:40 도도솔솔라리솔 1부 23:15 박원숙의 같이 씩사다 2부 23:50 스튜디오 K	18:15 MBC스포츠 2020 KBO리그 한국시리즈 2차전 21:50 MBC 뉴스데스크 1부 22:40 라디오스타 1부 23:40 라디오스타 2부	18:50 전국 TOP10 가요쇼(재)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토크쇼에다 2 리스트 천스 1부 21:35 토크쇼에다 2 리스트 천스 2부 22:05 토크쇼에다 2 리스트 천스 3부 22:35 백중원의 골목시당 1부 23:20 백중원의 골목시당 2부	<b>KCTV</b> 8:30 제주특집가이드 9:00 KCTV 뉴스 9:30 스타인업을 만나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KCTV 시청자대상 13:10 KCTV 다문화뉴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7:50 KCTV VOD 영화 소개 18:00 제주어 탐구생활 별타시대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1:00 KCTV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TBN 제주교통방송</b>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8일
	36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8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60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72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4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이직이유가 있기도 하다.
	37년 생각과 상상으로 인한 불변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 49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61년 행사나 단체모임에 참여하니 술은 자제. 73년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고, 무리한 투자는 금물. 소득없는 바쁜 일이 생긴다. 85년 새로운 기회를 접하니 주위 사람과 상의해 길을 모색하라.
	38년 분주하며 자녀문제 또는 이사문제가 있다. 50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격한 언행 주의. 62년 활동성이 늘어나며 바쁘고 분주하다. 부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74년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나 적응하라. 86년 할 일이 생기고 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39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일이 풀린다. 51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 데 망설인다. 모임이 있으면 참석,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상대방과 경쟁 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75년 직장 인에게는 호운이 오고 자영업은 휴식이 필요하다. 87년 신속한 결정은 인정을 받고 이익을 준다.
	40년 함께 의의할 일이 있으면 주변 또는 자녀와 상의하면 좋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변동문제 금전 문제로 가정에서 불화 발생. 64년 직장변동수가 있거나 부모와 마찰이 생긴다. 76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소식을 듣는다. 88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루라.
	41년 돈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53년 부하직원이나 자식 문제로 고민, 스트레스를 받는다. 65년 친구나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고 재물운이 좋다. 77년 가정에서 논쟁이,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 89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미팅이나 소개팅 상대가 미흡.
	42년 자녀 일이 원만하지 않아 고민, 자녀 문제로 자금 지출. 54년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며 구설이 따르고 다툼이 있다. 66년 옷분이나 부모님의 소식을 접한다. 78년 취업이나 직장에 관한 소식이 있거나 이성 만남이 있다. 90년 친척안나의 임장이 오면 주변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 게 좋다.
	43년 가까운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 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55년 몸이 쇠약해지고 집안이 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것. 67년 문서관련 시비나 구설이 있으니 계약은 미루고 심사숙고. 79년 직장이나 업무관련 구설수가 있으니 주의. 가정에서 언쟁 다툼. 91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4년 동상이몽이라 생각이 다른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염려된다. 56년 문서 때문에 이득이 있다. 소개·중매·계약 길. 68년 모임에 과음이야 언행주의. 실언이나 관계구설에 후회를 한다. 80년 무리한 투자성향으로 정신적 고통과 손재수를 가져온다. 이성교제에는 매너가 필요. 92년 나를 필요로 하면 도와줘라.
	45년 자식의 일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57년 갑작스런 외출이 있을 수 있으며, 분실수 우려. 무단속 철거. 69년 신경이 예민해 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 주의. 조기 귀가. 81년 친구 또는 이웃과 언쟁이 생기니 먼저 배려하라. 93년 짝이 있는 할 일이 있으면 친구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이 크다.
	46년 자녀나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근심이 생긴다. 58년 관제구설 시비수 조심, 운전 교통사고 주의. 70년 직장이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승진운이나 가정에서는 부부애정에 적신호. 82년 양보나 질이 우선시 되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94년 마음을 호탕하게 갖자. 짜증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47년 생각이 많고 불변증으로 밤이 무섭다. 마음의 안정과 내 건강이 우선. 59년 육하는 다혈질 성격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취미활동 필요. 71년 아버지와 의견다툼, 처와 불협화음이 있다. 83년 성과가 기대 이하이고 하자가 발생하니 꼼꼼히 체크하라. 95년 주변의 도움으로 수입이 생기고 건강 회복.